지휘자의 삶과 길

박 성 인
박성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일정한 기간동안 건축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실무와 정치, 경제, 인문, 사회, 공학, 예술적 측면을 종합하는 지식과 경력을 쌓아올려 여러고비의 시험을 거친후 정부가 발행하는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건축사는 비젼을 갖고 훌륭한 건축에 부응하는 열망으로 시작되지만 기본적인 자질은 너무나도 많은 분야의 지식과 능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이들요소 중 어느 하나의 뒷받침이 없이는 본연의 의미를 지닐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 월터 그로피우스는 건축이 「팀워크」의 산물이 될 것이라고 한말은 전문분야의 컨설탄트와 주변영역의 전문화된 컨설탄트의 협력이 필요로 한다는 소위 파트너쉽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몇년동안 건축사법에서 단독 합동 종합사무소의 범주를 규정 하면서 간혹 건축사의 면허대여, 건축사 고용 등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건축사간의 서로를 보완하기 위한 자생적 발생이 아닌것이 분명하며 건축이 무슨 공장제품인가 하는 역겨움이 앞선다.

건축은 건축가의 실험적 대상물로 건조되어서는 안되며 건축은 학문적 연구라는 차원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며 완성된 후에도 역사성을 지녀야하며 그 시대의 사회구조와 그 지역의 고유한 특수성에 의하여 성격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보며, 역사의 흐름속에서 건축가의 도움없이 주체적, 자생적으로 지어진 민중건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몇일전 지방신문에 "대형건축설계 타지역에 용역"이라는 주제로 지방건축사의 위축, 영세성을 탓하는 기사와 건축전문지에서의 대형건축물 해외용역으로, 왜! 우리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나 하는 사실에 개탄하는 내용에서 또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건축사는 건축행위의 지휘자로서 그 시대의 사명을 다하고, 그 시대를 사는 대중의 삶을 건축에 담아 역사의 증인이 되는 주체자로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해외용역을 제도적으로 막아주었으면 하는 여망이며 지방은 지방대로 지역보호색이 짙은 육성시책을 절실하게 주장하는 현실이 건축인의 단합된 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외제선호도의 국민성과 서울 대도시 상을 좋아하는 지방인의 자세에도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프로젝트에 수임하는데만 급급하였지, 전문기술의 축적과 정보자료의 수집등 준비자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결과는 뻔한 이치이다.

전문기술의 축척은 맨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보사회에서 밀물처럼 쇄도하는 각종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많은 경비와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는 크게든 적게든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건축은 "팀워크의 산물이다"라고 말한 그로피우스의 비젼은 건축사는 이러한 모든 세세한 조언에 대한 조정자(지휘자)이어야 한다는 것, 건축사는 최종적인 건물의 형태를 짓는 결정적인 판단을 궁극적으로 용인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자는 건축사보를 사무소 업무량에 따라 줄이고 늘이고 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행정부가 사무소의 규정을 마련한데는 한사람보다는 두사람이 낫고 두사람 보다는 세사람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단순한 생각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호보완과 경험과 능력을 종합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디자인하는 사람, 구조하는 사람,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등, 때에 따라서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전문화되어짐으로서 건축설계의 각부분이 개발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질적인 사람끼리 모인 임시방편식의 종합사무소는 건축사의 개성을 잃게 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팀워크를 구성해온 전문기술보조원(건축사보)의 탈락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필요하면 고용하고 필요치 않으면 과감히 버리는 풍토는 그들이 앞으로 건축사의 위치에 서게되면 어떠한 발전을 기대하겠는가.

과거의 건축은 영역의 한계를 건축물이라는 범주내에 한정시킴으로서 스스로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이제는 사회구조와 더불어 사회체계의 변화를 수렴하고 건축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갖으며 주체적인 역량으로 건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주위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건축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해야 하며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과 삶을 위하여 자신의 건축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축사는 건축행위의 지휘자로서 그 시대의 사명을 다하고, 그 시대를 사는 대중의 삶을 건축에 담아 역사의 증인이 되는 주체자로서 성장해야 할 것이다.